



TV 속 '촉법소년' 무섭고 끔찍하다

'리턴' '추리의 여왕' '작은 신의...' 등 잇따라 등장 9세 방화·14세 살인 등 다뤄 사회적 문제 제기

TV 수사극이 갈수록 강렬한 범죄를 다루는 가운데, 최근 촉법소년을 내세운 드라마가 잇따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지난해에는 사이코패스의 악마 같은 행각을 그린 드라마가 잇따라 충격을 줬는데, 최근 드라마가 그린 촉법소년 범죄는 개연성 면에서 그보다 더 무섭고 끔찍하다는 평가다.

제작진은 범죄 유형의 다양화를 그리는 측면에서 촉법소년들을 등장시켰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접근성이 높은 TV 드라마에서 촉법소년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린 아이, 나의 자녀가 범죄자가 됐을 경우를 따라가는 드라마 내용은 피상적인 연쇄살인마보다 훨씬 큰 공포감을 안겨준다.

◇ 9세의 방화·14세의 살인...소년범죄 다뤄
KBS 2TV 수목극 '추리의 여왕2'는 지난 7~8일 방송에서 만 9세 초등학생의 연쇄 방화 사건을 그렸다. 성인 방화범의 범죄 패턴을 인터넷을 통해 익힌 후 그대로 따라 한 소년은 건물 방화에 이어 아파트 옥상에서 사제 화염병을 투척해 행인이 중증 화상을 입게 만들었다. 심지어 그 행인은 자기 반 친구 엄마다.

SBS TV 수목극 '리턴'은 성인인 4명의 주인공이 19년 전인 1999년 11월에 저지른 범죄에서 출발한다. 주인공들이 만 13세였을 때로, 이들은 밤에 술파티를 벌이다가 키가 꽃혀있던 자동차를 몰래 몰고 나와 광란의 질주를 펼쳤고 지나가던 소녀를 치었다. 그리고는 시체를 바다에 유기했다.

OCN 주말극 '작은 신의 아이들'도 성인인 주인공들의 어린 시절에 추악한 비밀에 감춰져 있음을 암시하며 시작했다. 복지원 독목집 집단 살인사건에 아이들이 연관돼 있다는 분위기가 깔렸다.

이들 드라마에는 '촉법소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이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를 지칭한다. 형사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범죄자는 '소년범'으로 분류돼 소년교도소 등 교도소로 보내질 수 있다.

'리턴'의 13세 소년들은 사람을 차르 차 죽이고 시체를 유기했지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았다.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고,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없었음에도 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범죄자의 낙인없이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것으로 그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추리의 여왕2'의 9세 소년은 행인에게 중증 화상을 입혔지만 10세 미만이라 촉법소년도 되지 않아 아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 경우는 피해자가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거는 정도만 할 수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다양한 범죄를 조명하는 과정에서 범죄자의 연령을 낮춘 에피소드들이 등장한다"며 "뉴스에서도 아동이 저지른 범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 그런 현실이 반영된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에는 9세와 11세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11년에는 대구에서 14세 학생들이 친구를 괴롭혀 죽음으로 내몰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죄자'의 나이가 어린 사건이 큰 충격을 안겨줬다.

◇ "아직 어린애예요" vs "잘못에 대한 제재 확실 하 해야"

스릴러 범죄극인 '리턴'은 살인을 저지른 13세 소년 4인방이 모두 내로라하는 집안의 금수저들이라 경찰과 부검의 등 수사 관련자들을 모조리 매수해 촉법소년 중에서도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그렸다.

드라마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19년 묵은 복수극을 전개하는데, 복수의 중심에는 금수저 4인방이 죽인 소녀의 엄마가 있다. "법이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판사의 말에 "무슨 법이 그러냐"며 질책했던 엄마는 19년간 복수를 치밀하게 준비해 차근차근 실행에 옮긴다.

복수를 펼치는 엄마는 촉법소년이라고 처벌하지 않았더니 성인이 돼서 더한 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을 늘어놓으며 촉법소년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금수저 4인방은 커서도 전혀 죄의식 없이 살면서 도덕성이 결여된 상태로 각종 일탈 행위를 펼친다.

'추리의 여왕2'에서는 9세 소년 범인이라는 것을 안 남녀 주인공이 "겨우 아홉살 아이를 데리고 뭘 어쩌냐. 감옥에도 안 가는 나이"라며 개탄한다. 그러면서 "아이는 어려서 죄가 없고 부모는 자기 잘못 아니어서 죄가 없는 게 말이 되냐"며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할 수가 있냐"며 발을 구른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이든 그보다 어린 아이들의 범죄든,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반드시 잘못에 대한 제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하고 반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 잘못했을 때 제재를 받지 않으면 죄의식 없이 나쁜 짓이 습관화될 위험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리의 여왕2'는 결국 9세 방화범과 그 부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복수극이 진행 중인 '리턴'은 과거 촉법소년이었으나 지금은 열혈 형사가 된 남자 주인공을 내세워 촉법소년 제도의 긍정적 면모와 허점을 동시에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자들과 가족에게 미안"

조민기,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

배우 조민기(53)가 9일 숨진 채 발견됐다. 연이은 성추문 폭로에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을 서둘렀던 것이다.

조민기는 학생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연극과 영화, 드라마는 물론이고 예능과 강단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해온 배우였다.

그는 1982년부터 극단 '실험' 단원으로 연극무대에 주로 서다가 1991년 영화 '사의 잔미'로 본격적으로 데뷔했으며 1993년에는 MBC 22기 공채 탤런트로 방송계에도 입문했다.

조민기가 배우로 진로를 결정할 때 집안의 반대가 많았지만 사촌지간인 배우 조형기가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본격적으로 상업 작품을 발을 들인 그는 2013년 '변호인'을 비롯해 다양한 영화에서 비중 있는 조연으로 출연했고, 드라마는 1993년 MBC TV '야망'부터 마지막 작품이 된 2016년 SBS TV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까지 약 50편에 참여했다.

선한 역부터 악역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를 선보인 조민기는 2010년 3월에는 모교인 제주대학교 연극학과 조교수로 채용됐고, 2015년에는 부교수로 임용돼 강단에 올랐다.

조민기는 또 MBC TV 예능 '진짜 사나이'에도 출연해 친근한 이미지를 쌓았고 특히 2015년에는 딸과 SBS TV 예능 '일요일이 좋다-아빠를 부탁해'에 출연해 딸과 소통하는 아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의 호감을 얻었다. 그러나 올해 2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의 성추문 폭로글을 시작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그의 인생은 180도 뒤집혔다.

이후 성폭행 미수 의혹이 불거지고 음란한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대중은 그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렸다. 소속사 역시 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2월 27일 자신의 이름으로 낸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 지속하며 살겠다"는 사과문은 너무 늦은 반성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조민기를 출국 금지하고 오는 12일 소환을 통보했다.

한편 배우 조민기(53)씨가 제자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서에는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지난 9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2일,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평창 2018 패럴림픽 <휠체어컬링 대한민국>개나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재)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5 UHD 한식의 마음	00 라디오 로맨스(재)		
12	00 KBS 뉴스 12 3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00 12 MBC 뉴스 20 문화산책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특 Talk (재)
1	20 숨터(재) 25 2018 평창 패럴림픽 라이브 <스노보드 남녀 크로스/컬링 하이라이트>	00 다큐멘터리 3일(재)	10 헬로킴지 동물교실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	05 드림 주니어 스페셜 35 사이닝스타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5 MBC네트워크특선(재) 55 앙코르 MBC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55 뉴스콘서트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림하는남자들(재)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착한 마녀전(재)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퀘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색선 TV 연예통신 스페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40 공시청립특집 2부작 가야 <제1편 강철 바다>			
10	35 KBS 뉴스라인	00 라디오 로맨스	00 위대한 유혹자	00 키스 먼저 할까요?
11	05 월요기획 <여초의 진화, 새길을 찾다> 55 이웃집 찰스 (재)	10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획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45 생활의 발견	35 2018 평창 패럴림픽기획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천년의 전라도 20 평창 동계패럴림픽 하이라이트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화산섬의 비밀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멕시코 및 티베트 -1부 타코와 살사의 충격>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공나물 된장국과 봄나물 청포묵비빔밥>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냉장고 나라, 코코롱 16:15 웅강한 소방차 레이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당동당 유치원 1~2(재) 17:15 로보카 폴리 17:30 마샤와 곰 17:45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4 19:00 스페이더맨 19:30 EBS 뉴스	20:40 세계테마기행 <히말라야 동물들 내몸에 반하다 1부 길의 동반자, 당나귀> 21:30 한국기행 <울엄마 1부 그리운 엄마냄새> 21:50 EBS 다큐프라임 <가족 제1부 - 위대한 동행> 22:45 메디컬 다큐-7요일 <나를 버티게 하는 힘, 가족 -투게라스 와이> 23:55 엄마를 찾자마 24:45 지식채널e 24:50 세계의 드라마 <에이 워드 3부>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허준선이 과학쇼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월드 2			
08:00 당동당 유치원 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몬카토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3월 12일 (음 1월 25일 癸卯)

子	48년생 의롭게 처신한다면 두고두고 칭찬 받으리라. 60년생 예상치 못했던 데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72년생 소신껏 알린 뒤에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다. 84년생 조금 두들긴 해도 양호한 편이다. 행운의 숫자 : 14, 69	午	42년생 의도하는 요소가 있으나 존재 방식이 다르다. 54년생 값어치를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66년생 새로운 변화를 꾀해 보도록 하자. 78년생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중추적인 시점이 다. 90년생 변화하는 계기가 조성된다. 행운의 숫자 : 52, 41
丑	49년생 안정 국면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61년생 취득하느냐 상실하고 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73년생 마음에 담고 싶지 말고 내버려두어야 의미가 있다. 85년생 복록과 약재가 섞여 있어서 중압을 수가 없다. 행운의 숫자 : 36, 44	未	43년생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55년생 급속스럽게 변화하는 양상이다. 67년생 난제가 생겨나고 있지만 슬기를 모은다면 관망하다. 79년생 주머니 받거나 하며 박자가 잘 맞았다. 91년생 길잡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득세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1, 13
寅	50년생 전후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2년생 제반 요소들이 결집되어 활성화 단계에 이른다. 74년생 주체성과 독창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86년생 가계부 여길 문제가 아니니 더욱 신중하자. 행운의 숫자 : 06, 74	申	44년생 구관이 명관이다. 56년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68년생 오랫동안 성가셔 왔던 문제가 해결되는 성국이다. 80년생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면 관망할 것이니 불편하더라도 적응해나간다면 좋다. 행운의 숫자 : 11, 53
卯	51년생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63년생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75년생 전기하러 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87년생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간다면 부가 따른다. 행운의 숫자 : 29, 34	酉	45년생 대세로써 자리 잡았으니 강구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을 것이다. 57년생 이해하기 힘든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69년생 한 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하리라. 81년생 상황이 발생하기도 전에 마음부터 앞서자. 행운의 숫자 : 98, 76
辰	52년생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자. 64년생 평소 예상해 왔던 바대로 펼쳐지겠다. 76년생 이리저리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여 참으로 난감하리라. 88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을 때 매사가 풀리겠다. 행운의 숫자 : 45, 07	戌	46년생 드디어 수습 대국으로 접어들겠다. 58년생 남에게 말도 못할 기습 답답한 일이 생기리라. 70년생 혼란스러울 때 유익한 조언자가 나타나는 동세이다. 82년생 눈앞에 성공의 기운이 와 있으니 도전해 볼 만하다. 행운의 숫자 : 72, 43
巳	53년생 따로 따로 다뤄야 할 문제이다. 65년생 선례를 참고한다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77년생 전체를 아우르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89년생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다들 다닐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94, 71	亥	47년생 군사에 있어서는 간사한 꾀를 꺼리지 않는 법이다. 59년생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자 71년생 끊임없는 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관공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83년생 무의식적인 실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2, 2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